

대권 주자들 호남 세불리기 시작됐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 대선 잠룡들의 외곽조직들이 잇따라 창립해 세 불리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정가가 꿈틀대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외곽 친위부대 결성이 속속 이뤄지면서 세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선 주자 통틀어 지지율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외곽조직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빛고를 희망포럼’은 지난해 말 광주·전남 창립대회를 열고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사 인근에 사무실을 개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호남에 연고가 있는 친박계 핵심인 이성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강창희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주축으로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지난 2월 정치·경제·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0여 명 가까운 회원으로 구성된 ‘온고을 희망포럼’이 출범했다. 특히 호남에서 친박계를 대표하는 이정현 의원이

광주·전남의 조직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이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외곽조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이 장관의 후원조직인 ‘평상포럼 광주·전남준비위원회’ 창립식이 열렸고, 이 장관의 지지단체인 ‘공정사회 실현 광주·전남 시·도민 모임’도 이 장관을 초청해 개헌 당위성에 대한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평상 포럼은 이 장관의 전국적인 후원회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오 사랑’ ‘재오 세상’ 등 팬클럽 성격의 외곽조직도 활동 중이다. 정몽준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도 조만

간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지난 3월8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병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광주·전남 외곽조직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싱크탱크 격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중심으로 모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손 대표 지지 모임인 ‘실사구시’ ‘민심 산악회’ 등이 손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화하는 등 세 확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경우 한민족경제비전연구회 광주사무소와 후원회원이 주축인 ‘정통’(정동영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이 외곽조직으로 분류된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지난달 꾸려진 대선 캠프 ‘국민시대’를 전국 조직으로 확산하는 등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5·18 사적지인 전남대 정문 앞에서 열린 광주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까지 민주주의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민주성지순례’ 출범식을 갖고 지지자들과 광주, 남원, 구례, 하동, 마산, 부산, 봉하마을에 이르는 순례에 나섰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최근 창립한 ‘길벗’ ‘굴렁쇠’ 산악회를 비롯한 ‘러브코리아 국민포럼’을 중심으로 외곽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올 들어 잇달아 광주·전남지역 각 단체와 포럼의 초청강연, 특별강연 등에 참석하며 외곽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대표적인 팬클럽 ‘시민광장’도 광주·전남지역에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부와 지회 성격을 갖는 각 지역별 ‘광장’은 운영위원회와 총회 등을 통해 모임을 갖는 등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팬클럽인 ‘두드림’ 광주·전남 조직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사무실을 내는 등 차기 대권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올 들어 대선 유력 주자들의 외곽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창립식을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역정가가 벌써 술렁이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들어서면 외곽조직들의 세 확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9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문빈정사 앞에서 열린 ‘노무현 등산로 명명을 위한 선포식’ 직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명숙 전 총리,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등산로를 오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대중·노무현 기념공원 건립 본격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이 더뎠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사)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들머리에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공원을 올해 착공해 내년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광주시 무등산 들머리에 있는 시유지 2235㎡를 포함한 2423㎡의 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와 협의 중이다. 건립 예산은 시비 20억원, 민자 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애초 광주시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 지원을 위해 지난해 민간보조 예산 20억원을 세웠지만,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가 이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추진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시 시의회는 기념사업회의 법인 설립이 늦어진다며 책임과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기념사업회가 반발하는 등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법인 등록을 마친 뒤 위원회로 명칭 및 정관변경 하고,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을 잇달아 여는 등 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예산확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두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지구 문빈정사 앞에서 열린 ‘노무현 등산로’ 명명을 위한 선포식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도 “무등산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광주시민과 외국인인 찾은 곳이라서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공원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며 “공원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빠른 속도로 하반기 광주시 추가결정 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시·도 예산 이외에 다양한 시민 후원방법을 통해 3억원의 민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원 내에는 김대중 평화로와 노무현 등산로로 이어지는 기념공원 이정표를 설치하고, 상징 조형물 및 실의 추모시설, 친환경 전통 한옥과 현대 양식이 접목된 북 카페 및 기념품판매장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진위, 시유지 무상제공 등 협의
썰시장 예산 확보 긍정 검토
무등산서 ‘노무현 등산로’ 명명식

들어선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기록과 광주·전남 시·도민을 기리는 광주 명예전당과 다양한 무등산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무등산 증심사지구 문빈정사 앞에서 열린 ‘노무현 등산로’ 명명을 위한 선포식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법선·정찬용·김정현·박경린·노영욱 공동대표, 문성근 백만민단 대표,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선포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길었던 노무현 등산로(의재미술관→증심사→종머리재→용추삼거리→장불재)를 걸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아주 가관이었던라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